

#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광서사범대	기숙사비	2500RMB/한 학기
파견지역	중국 광시성 계림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O ) 분할납부( )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기타비용	

## ■ 파견자 정보

성 명		학 과	
성 별		학 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8. 07 . .

파견자 :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 대학 현황 보고서

## ■ 수업

우리처럼 교환학생 신분으로 수업을 듣게 되는 학생들은 문화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수업 반은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뉜다. 초급은 HSK1~3급, 중급은 4~5급, 고급은 5~6급 정도 수준으로 느껴지는데 수업이 어려워도 예습 복습만 잘 한다면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 기본적으로 '듣기, 말하기, 중합(대체로 문법을 많이 배움), 독해' 4과목을 틀고 추가로 쓰기, 중국문화 등의 수업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조정하면 된다.

수업시간은 오전수업 9시 30분 ~ 12시, 오후수업 2시반 ~ 5시 인데 대부분 선생님은 2~30분 전에 끝내 주시기 때문에 한 수업 당 2시간 정도 진행된다.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광서사범대의 대학원생이다. 나이가 우리보다 조금 많은 정도라서 공감대 형성도 잘 되고, 학생들을 잘 이해해 주셔서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해 주시며 나이대가 젊은 만큼 열정이 많아 수업 준비를 굉장히 잘 해 오신다.

거의 매 수업시간 마다 과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과제는 예습, 복습 정도이고 어려운 과제는 없다. 하루에 1~2시간 정도 투자해서 과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느낌은 없고 오히려 다음 수업을 들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다. 가끔 핸드폰으로 하는 과제를 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핸드폰으로 독해를 풀다보니 집중도 잘 안되고 어려웠지만 후에 HSK IBT를 준비할 때에는 그때의 과제가 많은 도움을 준 것 같기도 하다.

##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계림은 중국 남부에 위치하며 베트남 등 동남아와 가까운 편이다.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베이징, 상해로 가는 비행기 표 보다 조금 비싸다. 또 동남아와 가까워서 인지 여름이 되면 동남아 날씨와 거의 비슷하다. 9월에도 35-39도 정도이며 습도가 높아서 밖에 나가기 힘들 때가 종종 있다. 비가 많이 내릴 때에도 앞이 안보이게 오는 편이다. 9월부터 10월 까지 내내 덥다가 10월 중 후반이 되면 갑작스럽게 겨울이 온다. 굉장히 더운 여름에서 갑자기 겨울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인지 조금 춥게 느껴진다. 하지만 계림의 겨울날씨는 절대 영하로 내려가지 않으며 눈도 내리지 않는 지역이다. 그래서 겨울에는 한국보다 조금 따뜻해 생활하기 편리하다.

교통편은 잘 발달되어 있다. 학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택시가 항상 대기중이다. 한국과 다르게 교통비가 싼 편이라서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다.(버스 1, 2위안/택시 기본요금 9위안)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는 공원이나 관광지가 있으며 15분 정도 가면 시내가 있고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도 여러개가 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며 학교에서 10분정도 차를 타고 가면 한인슈퍼(조금 작긴 하지만 필요한 물품은 거의 구비되어 있음), 한인식당 등이 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숙사 정보

비 용	2500RMB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철저한 통금시간은 없고, 취사가 가능함		
주요사항	기본적인 에티켓만 잘 지키면 문제 될 것이 없음.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사 진 점 부

우선 기숙사 내부가 ‘口’ 형 복도인데 이게 광서사범대 기숙사의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함. 다 뚫려있어서 지나가다가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하기도 쉽고 금방 친해질 수 있음. 생활하다 보면 난간에 기대어 수다떠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본인도 그렇게 친구를 사귀. 또한 난간에 빨래를 널 수 있어 방 안에 건조대를 펼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좋음. 날씨가 더운 편이기 때문에 저렇게 널어두면 하루만에 빨래가 말라서 편리함!



사 진 점 부

하지만 시끄러울 때는 소리가 갇혀서 더 시끄럽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음. 2인 1실은 침대2개, 책상3개, 천장에 달린 수납장 3개, 옷장, 화장실 로 이루어져있음. 룸메이트와 상의하면 마음대로 구조를 바꿀 수 있고, 우리 방은 침대 두 개를 붙여 공간을 넓게 활용했음. 책상 하나는 화장대로 두고 두개는 각자 책상으로 활용.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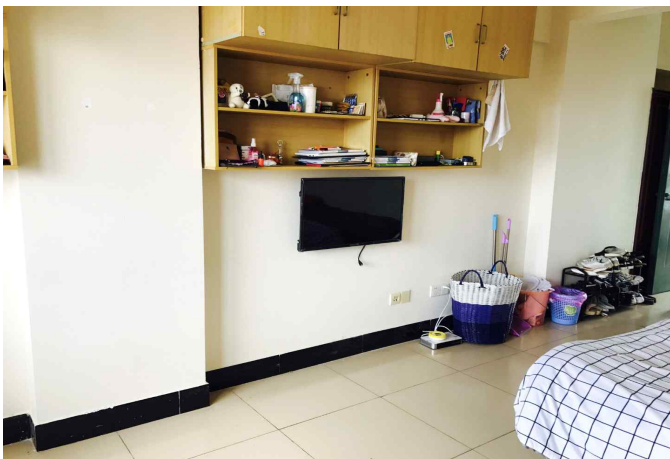


사 진 첨 부

룸메와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매일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카페처럼 책상을 붙여놓음.  
다른 학교에 비해 두명이 쓰기에 방이 굉장히 넓은 편. 4인실 크기와 크게 다를 없음.  
침대는 매트리스가 없어서 처음엔 당황스럽지만 학교 바로 앞 생필품점에 가서 만원 정도로 구입하면 불편한 점 없음.  
그리고 가장 당황스러운 점은 방 안의 전기를 직접 충전해서 쓰는 점과, 온수카드를 충전해야 온수를 쓸 수 있다는 점.

사 진 첨 부

방 앞에 남은 전기가 표시되는 기계가 있는데 프론트에 가서 방 호수와 얼마정도 하겠냐를 말하면 카드를 주고 그걸 직접 기계에 꽂아서 충전 하는 방식임. 온수카드도 동일하게 충전해서 화장실에 있는 온수센서에 올리면 온수가 나옴. 한달에 한번정도 충전해서 쓰거나 한번에 많이 해 둘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 정도는 아님. 하지만 전기가 0이 되면 방에 전기가 다 나가버리니 미리하지 않으면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음!



사 진 첨 부

작년에 모든 방 TV 교체와 옷장 교체,  
방마다 와이파이 설치가 이루어져  
생활하기 더 편리해 졌음.  
사진에서 보드시피 수납장 위치가 많이 높지만  
의자를 활용해 수납하면 사용 할 수 있음

## 교환학생 파견 수기

처음 중국으로 떠날 때엔 내가 그 곳에서 잘 적응하고 살지, 말도 잘 못하는데 외국인들과 어떻게 어우러질지 걱정이 많았다. 걱정대로 개강 후 한달 정도는 귀가 열리지 않아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다. 하지만 수업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수업에서 배운 중국어를 일상생활에서 중국인에게 사용해 그들과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자 자신감을 얻고 일단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한 것 같다.

그렇게 외국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많이 말하면서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자 어느 순간 발전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고 부듯했다.

내가 생각하는 교환학생의 장점은 이 점이다. 수업에서 배운 것이 수업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 시장에 가서, 관광지에서 갈 때 등 모든 면에 사용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중국어가 조금 잘 들리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중국인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는데 중국인 친구들이 부족한 점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같이 문화 교류를 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교환학생은 자비어학연수 보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운동회, 단체소풍, 문화원에서 연결해 주는 중국인 친구들과의 교류, 심지어 나와 친구들은 중국 본과 수업시간에 그들에게 한국 화장품을 가르쳐주는 한중문화교류 프로그램도 담당했었다.

또한 수업과제이외에 다른 공부는 거의 하지 않고 자주 나가서 놀았다. 외국인, 중국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진 못해도 관광지라도 가보고 시내라도 나가보고 했다. 이론적인 공부만 하는 것은 한국에서와 다를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하는 수업을 잘 따라가고 높은 시험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에 나가있는 만큼 회화 늘리기를 늘 목표 1순위로 생각했고 그 목표를 이룬 것 같아 내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다.

시간이 있을 때에는 다른 도시로 교환학생 파견이 된 친구를 만나러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 룸메이트와 둘이 가까운 도시를 여행하기도 했다.

현지여행만큼 좋은 공부는 없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던 여행이 이제는 즐거워졌고, 여행 중 택시기사님들과 가지는 수다시간은 내가 느끼는 여행의 묘미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교환학생 1년이 끝나고 나니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고, 결국 휴학을 하고 자비로 그곳에 더 있기로 결정했다. 다음 학기에 파견 되는 신규파견학생들도 나처럼 중국에, 중국어에 푹 빠졌으면 좋겠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사 진 첨 부

교환학생들이 쓰는 교실은 3층인데 3층의 모든 책걸상은 이런 나무 책걸상이다.

책상높이도 많이 낮고 의자도 불편해서 수업을 한시간 만 틀으면 다리와 엉덩이가 굉장히 아프다.

작년 2학기엔 39도 날씨에 교실에 에어컨도 없어서 수업가기가 정말 힘들었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담당 선생님께 매일 건의드려서 이번년도 1학기 부터는 에어컨이 설치되었다. 다음에 오는 학생들은 시원한

환경에서 공부가 가능할 것 같다.

기숙사 세탁실은 따로 사진을 찍어 둔 게 없지만 기숙사 4층과 8층에 4대씩 설치되어 있다.

처음엔 기숙사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광서사범대에서 4년을 다니는 학생들이

대다수이고 그 학생들은 방 안에

개인 세탁기를 따로 구비하기 때문에

모자람 없이 빨래를 할 수 있다.

사 진 첨 부

사 진 첨 부

--